2010 대수능 9월 모의평가
제2외국어/한문영역 한문과목 해설지

[정답]

문 항	1	2	3	4	5	6	7	8	9	10
정 답	②	①	②	④	①	⑤	④	③	②	④
문 항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정 답	⑤	②	③	①	①	②	④	③	②	④
문 항	21	22	23	24	25	26	27	28	29	30
정 답	③	⑤	⑤	②	⑤	①	⑤	③	⑤	①

[해설]

1. [정 답] ②
   [해 설] 제시한 그림에 나오는 사물을 묘사한 단어를 찾는 문제이다.
② 松林鶴鹿(송림학록) : 소나무 숲에서 노니는 학과 사슴들

2. [정 답] ①
   [해 설] 제시한 부수와 나머지 획수와 총획수에 합당한 한자 찾기
☞ 刂는 刀(도)의 변형된 부수이다
① 判(판) 刂,5 ② 券(권) 刀,6 ③ 到(도) 刂,6 ④ 努(노) 力,5 ⑤ 助(조) 力,5

3. [정 답] ②
   [해 설] 제시한 조건에 적절한 한자 찾기
☞ 哀(애), 慕(모)의 부수는 忄(心의 변형부수), 楊(양)의 총획은 13획
① 惑(혹),心,12획 ② 愛(애),心,13획 ③ 著(저),艹,13획 ④ 照(조),灬,13획 ⑤ 蒙(몽),艹,14획

4. [정 답] ④
   [해 설] 두 자를 합한 한자의 독음
☞ 水+ 工=江(강), 人+ 木=休(휴)

5. [정 답] ①

[해 설] 제시된 그림의 기능과 관련된 한자

☞ 그림에 나온 성벽의 기능은 '적의 공격을 막는 것'

① 防(방)막다 ② 植(식)심다 ③ 食(식)먹다 ④ 浴(욕)목욕하다 ⑤ 耕(경)밭갈다

6. [정 답] ⑤

[해 설] 신문기사에 나온 한자성어

☞ 薄利多**賣**(박리다매)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**팔다**

7. [정 답] ④

[해 설] 일상한자어의 뜻

☞ 問安(문안) : 안부를 묻다 - 안녕하십니까?

① 不平(불평) ② 招請(초청) ③ 祝賀(축하) ④ 感謝(감사) ⑤ 稱讚(칭찬)

8. [정 답] ③

[해 설] 생활한자어

① 使用量(사용량) ② 附加稅(부가세) ③ 納期日(납기일) ④ 加算金(가산금) ⑤ 發行日(발행일)

9. [정 답] ②

[해 설] 삽화의 내용에 적절한 한자어 찾기

☞ 그림의 내용으로 보아 어머니의 **칠순**잔치를 축하하고 있다

① 白壽(백수) : 99세 ② 古稀(고희) : 70세 ③ 回甲(회갑) : 60세

④ 耳順(이순) : 60세 ⑤ 弱冠(약관) : 20세

10. [정 답] ④

[해 설] 설명에 알맞은 한자어 찾기

☞ 博學(박학) : 널리 배우다 愼思(신사) : 신중하게 생각하다 明辨(명변) : 명확하게 분별하다

11. [정 답] ⑤

[해 설] 대화를 보고 풀이에 알맞은 한자어 찾기

☞ **家傳** : 집안에 전해지는 이야기
家電 : 집안에서 쓰는 전기제품
假傳 : 가상으로 지은 전기

12. [정 답] ②
[해 설] 시의 내용과 관련된 성어 찾기
☞ 제시한 김소월의 '고향'은 **고향을 그리는 마음**을 노래하고 있다
① 事必歸正(사필귀정) : 모든 일은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감
② 首丘初心(수구초심) : 여우는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쪽으로 뉘고 죽는다고 함. 즉 고향을 그리는 마음
③ 天長地久(천장지구) : 하늘과 땅처럼 영구히 변함이 없음
④ 錦衣還鄕(금의환향) : 비단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감. 즉 출세하여 고향으로 돌아감
⑤ 殺身成仁(살신성인) : 자신을 죽여 인을 이룸

13. [정 답] ③
[해 설] 퍼즐의 공통부분에 들어갈 한자 찾기
☞ 守株待兎(수주대토) :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어리석음
鶴首苦待(학수고대) :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는 뜻으로, 몹시 기다림

14. [정 답] ①
[해 설] 對(대)의 특성을 이용하여 단문의 빠진 글자 유추하기
☞ 道吾善者 是吾賊, 道吾惡者 是吾**師** : 나의 선한 점(좋은 점)을 말해주는 자는 나의 적이고, 나의 악한 점(나쁜 점)을 말해주는 자는 나의 **스승**이다

15. [정 답] ①
[해 설] 사자성어의 속뜻
☞ 滄海一粟(창해일속) : 푸른 바다에 좁쌀 한 톨, 즉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**미미함**

16. [정 답] ②
[해 설] 문맥상 알맞은 빠진 한자 유추하기
☞ 可(가) 1. 옳다 **2. ~할 수 있다**
(가) 寧測十丈水深, 難測一杖人心 : 차라리 열 길 물 깊이를 헤아릴지언정, 한 길 사람 마음을

헤아리기는 어렵다

(나) 水深可知 人心難知 : 물의 깊이는 알 수 있으나, 사람 마음은 알기가 어렵다

17. [정 답] ④

[해 설] 단문(격언)의 의미

☞ 二人同心, 其利斷金, 同心之言, 其臭如蘭 :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날카로움이 (단단한)쇠를 끊고, 마음을 같이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

18. [정 답] ③

[해 설] 글의 내용과 관련된 단문 찾기

☞ 여기서 '채택'은 '응후'에게 모름지기 지위에서 물러날 때를 아는 자가 욕됨과 위태로움을 면할 수 있음을 충고하고 있다

① 突不燃 不生煙 : 굴뚝에 불때지 않으면 연기가 나지 않는다

② 積功之塔 豈毁乎 : 공들여 쌓은 탑이 어찌 무너지겠는가?

③ 知足不辱 知止不殆 :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,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

④ 欲勝人者 必先自勝 : 남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스스로를 이겨야한다

⑤ 施恩勿求報 與人勿追悔 : 은혜를 베풀고 보답을 구하지 말고, 남에게 주고 후회하지 말라

19. [정 답] ②

[해 설] 대화의 내용에 알맞은 단문 찾기

☞ "쉬운 것부터 풀다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실력도 점점 쌓일 거야"

① 三歲之習 至于八十 : 세 살적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

② 九層之臺, 起於累土 : 구층의 누대도 (한 줌) 흙을 쌓은 데에서 시작됨

③ 他山之石 可以攻玉 : 남의 산의 돌이라도 내 옥을 갈아낼 수 있다

④ 月滿則缺 物盛則衰 : 달도 차면 기울고, 사물이 성하면 쇠해짐

⑤ 非禮勿視 非禮勿聽 :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,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

<20~22번 한시 해석>

(가) 가을 그늘은 막막하고 온 산은 조용한데
낙엽은 소리없이 땅에 가득차 붉구나
개울가 다리 위에 말을 세우고 돌아갈 길 물으니
내 몸이 그림 속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구나

(나) 요즈음 안부는 어떠하신지요?

달빛 어린 창가에서 이 몸의 한은 깊어갑니다
만약 꿈길에도 오간 흔적이 있다면
문 앞의 돌길이 이미 모래가 되었을 거예요

20. [정 답] ④

[해 설] 시어의 해석순서

① 無聲 : 소리가 없다 ② 立馬 : 말을 세우다 ③ 不知 : 알지 못하다

④ 夢魂 : 꿈속의 넋 ⑤ 成沙 : 모래를 이루다

21. [정 답] ③

[해 설] 한시의 형식과 표현상의 특징

ㄱ. (가)의 형식은 칠언율시이다 ⇒ 칠언절구

ㄹ. (나)의 제3구와 제4구는 대우(對偶)를 이룬다 ⇒ 대우가 아님

22. [정 답] ⑤

[해 설] 한시의 감상

☞ 헤어진 임에 대한 그리움을 꿈속의 일을 가정하여 참신하게 표현을 함

<23~24번 전문 해석>

공자께서 말씀하시길, “후생은 두려울만하니 어찌 앞으로 오는 자들이 (나의) 지금보다 못할 줄을 알겠는가? (그러나) 40~50세가 되어도 알려짐이 없으면 이 또한 족히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다.”

23. [정 답] ⑤

[해 설] 글의 내용 이해

미래의 **잠재력**을 가진 후학들에게 학문에 더욱 힘써 그 가능성을 실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

24. [정 답] ②

[해 설] ‘焉’의 쓰임과 통의자(通義字) 찾기

☞ 여기서 焉(언)은 ‘어찌’로 쓰였으며, 安(안)도 ‘어찌’의 뜻이 있다

<25~27번 전문 해석>

환웅이 무리 삼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니 그곳을 ‘신시’라하고 이 사람을 ‘환웅천왕’이라 했다.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, 수명, 질병, 형벌, 선악

을 주관하였다

25. [정 답] ⑤

[해 설] 글의 내용 파악

☞ 부귀(富貴)는 나타나 있지 않음

26. [정 답] ①

[해 설] 해석순서

☞ 태백산(太白山) 꼭대기(頂) 신단수(神壇樹) 아래(下)에(於) **내려오다(降)**

27. [정 답] ⑤

[해 설] '將'의 쓰임

☞ 將(장) 1. 장수 2. 장차 **3. 거느리다**

<28~30번 전문 해석>

두더지가 자기 자식을 위해 높은 혼처를 택하려고 했다. <중략> 두더지가 바람에게 구혼하니, 바람이 말하길, "나는 비록 구름을 흩을 수 있으나, 오직 밭 사이의 돌부처는 불어도 넘어지지 않으니 저것이 내 위에 있도다!" 두더지가 돌부처에게 구혼하니, 돌부처가 말하길, "내가 비록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, 오직 두더지가 내 발 밑을 뚫으면 기울어져 넘어짐을 면하지 못하니 저것이 내 위에 있도다!" 두더지가 이에 거만스레 스스로 기뻐하여 말하길, "천하의 높은 것이 나 만한 것이 없구나!"하고는 마침내 두더지와 혼인했다

28. [정 답] ③

[해 설] 문맥상 빠진 글자 유추하기

☞ 내가 비록 (**바람을**) 두려워하지 않지만

29. [정 답] ⑤

[해 설] '說'의 다양한 뜻

☞ 說 1. 말하다(설) **2. 기쁘다(열)** 3. 달래다(세)

30. [정 답] ①

[해 설] 글의 내용 이해

두더지는 자신이 아니라 **자기 자식의 혼처**를 구하고자 했다 (欲爲其子 擇高婚)